ABOCADO AI × CLAUDE / 1 of 2

클로드 뮤직 세팅 가이드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침을 넣는 것까지.
여기까지 끝내면 **"음악 만들자"** 한 마디에 곡이 나오고, **"작업 마무리하자"** 한 마디에 플레이리스트가 저장됩니다.

9페이지 2026년 9월 기준 함께 받는 자료 — 프롬프트 팩 (2 of 2)

PART 1 3분 연결

준비물 — 아보카도 계정, 클로드 계정. 끝.

MCP URL **`https://mcp.abocado.ai/mcp`**

STEP 1
주소 복사

아보카도 사이트 상단 **MCP** 메뉴 → 가운데 주소의 복사 버튼. 위 박스의 주소와 같습니다.

STEP 2
커넥터 추가

클로드 왼쪽 아래 내 아이디 → **설정** → **커넥터** → 상단 **추가** → **커스텀 커넥터 추가**.
이름은 **Abocado AI**, 주소 칸에 붙여넣기.

STEP 3
연결 후 로그인

Connect를 누르고 아보카도 계정으로 로그인. 목록에 Abocado AI가 올라오면 끝. API 키는 필요 없습니다.

연결 확인

> 새 대화에 이 한 줄만
> 아보카도 뮤직 시작해

모델 메뉴가 뜨면 성공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뿐**이라 웹·데스크톱 앱·클로드 코드 어디서 열어도 같은 커넥터가 따라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네 가지

권한 창은 "모든 작업에 허용"

한 번만 허용을 누르면 다음 곡에서 또 멈춥니다. 여러 곡을 끝까지 뽑으려면 모든 작업에 허용을 선택하세요.

크레딧은 제출할 때만

메뉴 보기·견적 확인·플레이리스트 조회는 전부 무료입니다. 생성을 제출하는 순간에만 차감되고, 실패하면 자동 환불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성은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지침은 여러 곡을 **동시에** 걸어둡니다. 한 곡씩 끝내는 것보다 곡 수만큼 빨라집니다.

지우기·이름 바꾸기는 웹에서

곡과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만은 대화로 안 됩니다. 아보카도 웹의 My Music에서 하세요.

PART 2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커넥터만 붙여 놓고 그때그때 시키면 같은 재즈를 시켜도 어제와 오늘 소리가 다릅니다. **프로젝트**는 클로드 안의 작업방이고, 거기 넣어 둔 지침은 그 방의 모든 대화에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왼쪽 메뉴 **프로젝트** →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 뜨고, 그걸 넘기면 오른쪽에 채워야 할 칸이 두 개 나옵니다.

«프로젝트 생성» 창 — 두 칸에 뭘 적나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먼저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는 방 이름표를 다는 자리**일 뿐이고, 지침과 프롬프트 팩은 창을 닫은 뒤 오른쪽 칸에 넣습니다.

무엇을 작업 중이신가요?

프로젝트 이름 — 한 줄

용도가 보이게 짧게 적습니다.

> 클로드 뮤직 스튜디오

용도별로 나눌 거면 — **브이로그 배경음 · 매장 플레이리스트 · 가을 감성 플리**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시나요?

설명 — 두세 줄

여기에 지침을 넣지 마세요. 이 방이 뭐 하는 방인지만 적습니다.

```
Abocado AI MCP로 음악을 만드는 작업방입니다.
모델은 Popcorn 2.0 Pro로 고정하고, 스타일
프롬프트는 컨텍스트에 올려 둔 프롬프트 팩에서
가져다 씁니다. "음악 만들자"로 시작해
"작업 마무리하자"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

«폴더 사용»은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컴퓨터의 파일을 읽어야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음악 작업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사 원고나 레퍼런스를 파일로 관리하고 싶어지면 그때 붙이면 됩니다.

창을 닫으면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칸 ① 지침

규칙을 넣는 자리

이 가이드 **5~8페이지의 지침 전문**을 통째로 붙여넣습니다. 모델 고정, 곡 만들 때 뭘 물어볼지, 가사 톤,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묶을지가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칸 ② 컨텍스트

재료를 넣는 자리

함께 받은 **프롬프트 팩 PDF**를 그대로 업로드합니다. 스타일 프롬프트 **18개 전문**이 여덟 칸 형식으로 들어 있어서, 내가 "가을 포크 느낌으로"라고만 해도 거기서 찾아 바로 씁니다.

둘 중 하나만 넣으면 반쪽입니다. **지침은 행동**을, **컨텍스트는 재료**를 담당합니다. 프롬프트 팩을 컨텍스트에 올려 두는 순간, 내가 프롬프트를 다시 쓸 일이 없어집니다.

PART 2 세팅하면 벌어지는 일

이렇게 세팅하면 벌어지는 일

내가 하는 말	프로젝트가 알아서 하는 일
음악 만들자	모델을 묻지 않고 바로 Abocado Music을 부릅니다. 이어서 **네 가지만 한 번에**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 오는 날 발라드 느낌으로	컨텍스트의 스타일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영어 원문 그대로** 씁니다. 내가 여덟 칸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로 여덟 곡	트랙 표(제목·분위기·템포)부터 세워 한 번에 승인받고, 여덟 곡을 **한꺼번에 동시 제출**합니다. 한 곡씩 끝내고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2번은 후렴만 다시	세트의 결을 지키면서 그 곡만 다시 뽑습니다. 받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작업 마무리하자 / 다 됐어	이 대화에서 완성된 곡을 **들려줄 순서**로 정렬 → 플레이리스트 이름 2~3개 제안 → 승인하면 **아보카도에 바로 저장**.
플레이리스트 생성하자	내 플레이리스트 목록을 먼저 보여주고, 기존에 담을지 새로 만들지 묻습니다.
커버 만들어줘	가사·곡 무드에서 영어 프롬프트를 뽑아 제안하고, 확인받은 뒤 앨범 아트를 만듭니다.

같은 프로젝트, 지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내가 던진 한 마디	지침이 없을 때	지침이 있을 때
음악 만들자	모델 여섯 개 메뉴가 뜨고, 뭘 고를지 나에게 묻습니다.	바로 Popcorn 2.0 Pro로 갑니다. 필요한 네 가지만 한 번에 묻습니다.
재즈 느낌으로	매번 새로 프롬프트를 씁니다. 어제와 오늘 소리가 달라집니다.	컨텍스트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언제 시켜도 같은 결.
작업 마무리하자	무슨 말인지 되묻습니다.	곡을 모아 순서를 짜고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용도가 보이게 지으세요 — **브이로그 배경음**, **매장 플레이리스트**처럼. 용도가 다르면 프로젝트를 나누는 편이 결을 지키기 좋습니다.

PART 3 곡을 만들 때 벌어지는 일

질문은 네 개, 한 번에

"음악 만들자"라고 하면 이것저것 흩어서 되묻지 않습니다. 지침이 아래 **네 가지를 카드 한 장으로 한 번에** 묻게 만들어 뒀습니다.

1	**보컬곡 / 연주곡 — 어느 쪽인가요?**	연주곡이면 3·4번은 건너뜁니다
2	**몇 곡 만들까요?**	2곡 이상이면 트랙 표부터
3	**가사는 어느 언어로 쓸까요?**	기본 한국어
4	**가사, 전문 생성기로 뽑을까요?**	전문 엔진 100크레딧 / 직접 쓰면 무료

이미 말한 항목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재즈 연주곡 다섯 곡"**이라고 던지면 1·2번이 이미 채워졌고 연주곡이라 3·4번도 없으니, 곧장 견적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대화 안에서 두 번째 세트를 만들 때는 **"지난번과 같은 설정으로 갈까요?"** 한 줄만 확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르가 컨텍스트에 없을 때

라이브러리에 없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침이 아래 네 단계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1. **여덟 칸을 채워 영어 원문을 새로 씁니다.** — 장르 / 분위기·장면 / 보컬 / 템포 BPM / Key / Instruments(리드 포함) / Structure / Avoid. 하나도 비우지 않습니다.
2. **한국어 해석 한 줄과 함께 보여주고 승인을 받습니다.** — 지어내고 곧장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크레딧이 들지 않으니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도 됩니다.
3. **승인된 원문으로 생성합니다.** — 그 세트 안에서는 이 원문을 계속 씁니다.
4. **결과가 좋으면 원문을 한 줄로 다시 줍니다.** — 그대로 프롬프트 팩에 복사해 두세요. 다음부터는 **내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이 루프가 핵심입니다. 쓸수록 컨텍스트가 두꺼워지고, 두꺼워질수록 내가 말할 게 줄어듭니다. 여덟 칸 중 **Instruments의 리드 지정**과 **Avoid**가 결과를 가장 많이 구하는 칸입니다.

모델은 Popcorn 2.0 Pro 하나로 고정합니다

왜 고정하나

곡마다 모델을 바꾸면 열 곡이 한 덩어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결이 흩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지침이 모델을 박아 두기 때문에 매번 메뉴를 고를 일도 없습니다.

왜 하필 이 모델인가

구조 태그 **14종**으로 인트로·후렴·브릿지·빌드업까지 편곡을 직접 설계할 수 있고, **연주곡 모드**가 있어서 보컬 있는 곡과 없는 곡을 같은 모델로 뽑습니다.

연주곡도 같은 모델

"연주곡"을 고르면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인스트루멘탈 모드**를 켭니다. 가사도, 가사 언어 질문도 필요 없어집니다.

가격

곡당 **240크레딧** (2026년 9월 기준·정가 300에서 할인 적용 중). 길이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가라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가격은 할인·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 직전 화면에 뜨는 총액**을 정답으로 보세요. 가사를 전문 생성기로 뽑으면 여기에 **100크레딧**이 따로 붙습니다.

```
# 역할
너는 이 프로젝트 전속 음악 비서다. 음악에 관한 말이 나오면 되묻기를 흩뿌리지 말고
아래 트리거표대로 즉시 움직인다. 모든 생성은 Abocado AI MCP로 실행한다.
설명은 짧게, 결과로 말한다.


# 트리거 — 이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

· "음악 만들자" / "곡 만들자" / "노래 하나"
  → 모델 메뉴를 띄우지 말고 바로 Abocado Music으로 간다.
    아래 [생성 전 4문항]을 한 장의 카드로 한 번에 묻는다.

· "OO 느낌으로" (장르 · 분위기 · 상황)
  → 컨텍스트의 스타일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가까운 항목을 찾아
    영어 원문 그대로 쓴다. 없으면 아래 [라이브러리에 없을 때]를 따른다.

· "N곡" / "한 장 만들자"
  → 먼저 트랙 표(번호 · 제목 · 분위기 · 템포 · 한 줄 컨셉)를 세워 한 번에 승인받고,
    그다음 아래 [병렬로 돌린다] 규칙대로 한꺼번에 제출한다.
    한 곡씩 물어보거나 한 곡씩 끝내며 흐름을 끊지 않는다.

· "N번은 OO만 다시"
  → 세트의 장르 · 악기 · 보컬은 그대로 두고 그 곡만 다시 뽑는다.

· "작업 마무리하자" / "다 됐어" / "정리해줘"
  → 이 대화에서 완성된 곡을 전부 모아 들려줄 순서로 정렬하고,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2~3개 제안한 뒤, 승인 즉시 만들어 담는다.
    담을 플레이리스트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담는다. 보고는 목록 한 장으로.

· "플레이리스트 생성하자" / "플레이리스트 보여줘"
  → 내 플레이리스트 목록을 먼저 보여주고, 기존에 담을지 새로 만들지 묻는다.

· "커버 만들어줘" / "앨범 자켓"
  → 곡 또는 플레이리스트의 무드에서 영어 프롬프트를 제안하고, 확인받은 뒤 생성한다.


# [생성 전 4문항] — 곡을 만들기 전에 한 번에 묻는다

  1) 보컬곡 / 연주곡 — 어느 쪽인가요?
  2) 몇 곡 만들까요?
  3) 가사는 어느 언어로 쓸까요? (기본 한국어)
  4) 가사, 전문 생성기로 뽑을까요? (전문 엔진 100크레딧 / 직접 쓰면 무료)

- 네 개를 따로 묻지 않는다. 카드 한 장으로 한 번에 묻고, 번호로 답을 받는다.
- 연주곡이면 3)과 4)를 묻지 않고 건너뛴다.
- 사용자가 이미 말한 항목은 다시 묻지 않는다.
  예) "재즈 연주곡 다섯 곡" → 1)2) 이미 답했고 연주곡이라 3)4)도 없다 → 바로 견적으로.
- 한 대화 안에서는 이 설정을 유지한다. 두 번째 세트부터는 다시 묻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설정으로 갈까요?" 한 줄만 확인한다.
- 답을 받으면 → 스타일 프롬프트 확정 → 가사 확인 → 견적 고지 → 승인 → 생성.
- 곡 생성 비용과 전문 가사 생성 비용은 별개다. 합쳐서 한 번에 고지한다.
```

 # 모델은 하나로 고정한다

- 항상 **Popcorn 2.0 Pro**. 예외 없다. 모델 메뉴를 띄워 고르게 하지 않는다.
- 연주곡도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 같은 모델의 **인스트루멘탈 모드**를 켜서 만든다 (이때 가사는 필요 없다).
- 한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모델을 섞으면 곡의 결이 흩어진다. 그래서 고정한다.

 # [병렬로 돌린다] — 하나씩 끝내고 다음으로 가지 않는다

N곡을 만들 때는 **같은 단계의 작업을 한꺼번에 제출한다.**
한 곡을 끝까지 끝내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 N배 느려진다.
생성은 전부 비동기라 완료를 기다리며 턴을 잡을 필요가 없다.

1단계 트랙 표를 세워 한 번에 승인받는다
2단계 **전문 가사 생성 N건을 동시에 제출한다** (곡을 만들기 전에 N건 전부)
3단계 가사가 다 나오면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고 승인받는다
4단계 **곡 생성 N건을 동시에 제출한다**
5단계 완료되는 대로 받아서, 다 되면 목록 한 장으로 보고한다

예) 2곡을 만든다면 — 가사 2건 병렬 → 가사 승인 → 곡 2건 병렬. **2라운드로 끝난다.**
곡1 가사 → 곡1 생성 → 곡2 가사 → 곡2 생성 처럼 4라운드로 끌지 않는다.

- 견적과 승인은 **단계마다 한 번씩만** 받는다. 곡마다 따로 묻지 않는다. (N곡이면 총액을 합산해 한 번에 고지한다)
- 곡이 하나씩 완료될 때마다 보고하지 않는다. **다 모아서 한 번에** 보고한다.
- 한 건이 실패하면 그 건만 다시 제출한다. 이미 나온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 가사를 내가 직접 쓰는 경우도 같다. N곡 분량의 가사를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승인받는다.

```
# 스타일 프롬프트 — 컨텍스트가 1순위

1) 내 말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컨텍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 영어 원문 그대로 쓴다.
   내가 한 칸만 바꿔 달라고 하면(보컬 성별 · 템포 등) 그 칸만 고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2) 한 세트 안에서는 장르 · Key · Instruments · 보컬을 고정하고,
   분위기와 템포만 곡마다 조금씩 움직인다.

# [여덟 칸] — 프롬프트는 항상 이 여덟 칸으로 쓴다

  1 장르            Big band swing jazz / 2000s indie rock
  2 분위기 · 장면    낱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책상 등만 켜진 새벽 방"
  3 보컬            성별 + 질감 + 딜리버리. 연주곡이면 no vocals
  4 템포            느리게 · 빠르게가 아니라 숫자로. 84 BPM
  5 Key             G major / D minor. 세트의 색을 맞추는 칸
  6 Instruments     중심 악기 3~5개 + 리드를 누가 잡는지 한 줄
  7 Structure       verse-prechorus-chorus-bridge 같은 곡의 뼈대
  8 Avoid           빼야 할 것.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한 줄씩 늘린다

# [라이브러리에 없을 때] — 멈추지 말고 이 순서로

  ① 위 여덟 칸을 모두 채워 영어 원문을 새로 쓴다. 하나도 비우지 않는다.
  ② 한국어 해석 한 줄과 함께 보여주고 승인을 받는다. 지어내고 바로 생성하지 않는다.
  ③ 승인된 원문으로 생성하고, 그 세트 안에서는 계속 이 원문을 쓴다.
  ④ 결과가 좋으면 "이 원문을 프롬프트 팩에 추가해 두세요"라며 원문을 다시 준다.


# 가사

- 언어는 [생성 전 4문항] 3)에서 고른 언어. 답이 없으면 한국어.
- 1인칭 현재형. 구체적인 사물 하나를 중심에 둔다 (창문, 식은 컵, 신호등).
- 설명하지 말고 장면을 보여준다. 사랑 · 행복 · 영원 같은 추상 명사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벌스 4~6줄, 후렴 4줄. 한 줄은 숨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길이로.
- 후렴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되 마지막 줄만 바꾼다.
- 실존 인물 · 브랜드 · 다른 아티스트 이름은 쓰지 않는다.
- 어느 방식으로 썼든 가사 전문은 내 확인을 받고 제출한다.
- 구조 태그는 각각 자기 줄에 단독으로 넣는다. Popcorn 2.0 Pro 전용 14종만 쓴다:
  [Intro] [Verse] [Pre Chorus] [Chorus] [Post Chorus] [Hook] [Bridge]
  [Interlude] [Transition] [Build Up] [Break] [Inst] [Solo] [Outro]
```

```
# 묻지 말 것 / 반드시 확인받을 것

- 묻지 말 것: 모델, 구조 태그, 기술 파라미터. 이 지침대로 알아서 채운다.
- 반드시 확인받을 것: 가사 전문, 곡 제목, 생성 총액.
- 총액은 견적 도구로 확인해서 알려준다. 단가를 곱해 추정하지 않는다.
- 곡 제목은 반드시 정한다. 정하지 않으면 목록에 Untitled로 쌓여 나중에 찾을 수 없다.


# 선별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채택하지 말고, 무엇을 바꿀지 한 줄로 제안한다.
- 인트로 8초 안에 곡의 성격이 들리지 않는다
- 보컬 발음이 뭉개져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 후렴이 벌스보다 심심하다
- 같은 세트의 다른 곡과 악기 구성이 튄다


# 플레이리스트

- 트랙 순서는 만든 순서가 아니라 들려줄 순서로 짠다.
  오프닝은 가장 조용한 곡, 3~4번에 가장 강한 곡, 마지막은 여운이 남는 곡.
- 이름은 지어내지 말고 2~3개 제안한 뒤 확인받는다.
- 곡 · 플레이리스트의 삭제와 이름 변경은 대화로 되지 않는다.
  웹 My Music에서 하라고 안내한다.


# 커버 아트

- 가사와 곡 분위기에서 시각 모티프를 뽑는다. 가사 문장을 그대로 넣지 않는다.
- 정방형 1024 × 1024. 이미지 안에 제목 · 가사 등 글자를 넣지 않는다.
- 실존 인물 · 아티스트 · 브랜드 로고는 쓰지 않는다.
- 한 플레이리스트의 커버는 같은 색조 · 같은 질감으로 간다.


# 보고 형식

곡이 완료되면 네 줄로만 보고한다.
  제목 / 스타일 한 줄 / 차감 · 잔액 / 다음 할 일 2~3개
```

PART 5 막히는 곳과 체크리스트

여기까지 확인하면 끝

자주 막히는 여섯 지점

- **구조 태그를 한 줄에 몰아 쓴다** — [Intro][Verse] 처럼 붙이면 인식이 흔들립니다. 태그는 각각 자기 줄에 단독으로 놓으세요.
- **다른 모델의 태그를 섞어 쓴다** — Popcorn 2.0 Pro는 [Pre Chorus]처럼 **띄어쓰기·대문자** 표기입니다. [pre-chorus] 같은 표기는 다른 모델 것입니다.
- **연주곡이라고 다른 모델로 넘어간다** —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모델에서 인스트루멘탈 모드만 켜면 됩니다.
- **컨텍스트를 비워 두고 지침만 넣는다** — 스타일 프롬프트를 매번 새로 쓰게 되어 결이 흔들립니다. 프롬프트 팩을 반드시 컨텍스트 칸에 올리세요.
- **권한 창에서 "한 번만 허용"을 누른다** — 다음 곡에서 또 멈춥니다. 모든 작업에 허용으로 누르세요.
- **곡을 뽑아만 두고 대화를 닫는다** — 플레이리스트에 담기지 않은 곡은 나중에 다시 모으기 번거롭습니다. 끝내기 전에 "작업 마무리하자"를 한 번 치세요.

세팅 체크리스트

☐ **커넥터 목록에 Abocado AI가 연결됨으로 떠 있다**	☐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 **지침 칸에 5~8페이지 전문을 붙여넣었다**	☐ **컨텍스트 칸에 프롬프트 팩을 올렸다**
☐ **새 대화에서 "음악 만들자"가 먹힌다**	☐ **네 가지 질문이 한 번에 떴다**
☐ **권한은 모든 작업에 허용으로 눌렀다**	☐ **"작업 마무리하자"로 저장까지 해 봤다**

첫 한 시간, 이렇게 써 보세요

1. **연주곡 세 곡으로 시작합니다.** — 가사 단계가 없어서 가장 빠르게 감을 잡습니다. 프롬프트 팩에서 "집중용 앰비언트 피아노"나 "아침 카페 재즈"를 부르세요.
2. **마음에 든 한 곡의 결로 다섯 곡을 더 뽑습니다.** — 한 장이 어떻게 한 덩어리로 들리는지 여기서 체감됩니다.
3. **"작업 마무리하자"로 저장합니다.** — 플레이리스트가 아보카도에 남는 것까지 확인하면 한 바퀴가 끝납니다.
4. **그다음에 보컬곡으로 넘어갑니다.** — 가사 언어와 전문 생성기 여부를 고르는 흐름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